" 자기를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 "

■ 이종윤 원로목사

마태복음11:29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으로 표현되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 안에 품어야' 교회가 하나된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다.(빌2:5) 그 겸손은 세상의 어떤 겸손과 달리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겸손이요, 그가 보여 주셨고 실천해 주셨던 겸손이다. 따라서 예수님을 닮고 모방하려는 제자들만이 이 겸손을 가질 수 있고 행할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지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게 되는 비결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겸손함이 있는지를 보면 알게 된다. 로마가톨릭교회의 교황이 베드로 사도의 후예라고 자칭하면서 성도의 발을 닦아주어야 할 자리에 앉아 오만과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명령과 대접이나 받고 있다면 그가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의 대상이 된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였다. 철학에서 말하는 실체가 아니요, 하나님의 속성과 완전히 동일하신 존재라는 뜻이다. 제2위 신이 아니고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다. '본체시나'는 영어로 과거 시상으로 번역되었으나 헬라어에서는 미완료 분사형 즉 계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수는 성육신하신 뒤에도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이다.

1960년대 미국에서 소위 사신(死神)신학이 나와 한동안 세상을 시끄럽게 했다.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신은 죽었다는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후 부활 승천하신 것이 신화라면서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요한복음에서 '내가 세상을 위해 목숨을 버렸노라' 하실 때 그 목숨은 헬라어로 '조에'(생명)가 아닌 '프쉬케'(자아)로 되어 있다.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6)고 한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과 능력에 있어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광, 능력, 주권이 그에게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취하려 하지 않으셨다. 애를 써서 취하려고 할 만큼 소중한 것을 이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그것을 취하려 하지 않으셨다. '자기를 비워'(7)는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같이 되심을 강하게 표현한 것이다. 예수께서 모든 권능과 영광을 쏟아버리시고, 아무것도 없는 빈 상태에 계신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말은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겸손의 표현인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영광과 주권을 포기했다고 해석할 경우 삼위일체 교리에 위배될 수 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갖고 계셨다. 그분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사도는 여기서 그리스도를 사색적이고 철학적으로 서술하지 않고 그의 겸손을 흠모하고 찬양한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를 영원히 가지고 계시면서 종된 사람의 형체를 덧입고 계신 것이다. 神 · 人 양성의 기독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독특한 성품이요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이다. 케노시스(비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포기했다는 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케 된다. 도케티시즘(가현설)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한다.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수 없고 영적으로 오셨다는 가현설은 기독교 이단이다.

뒷면으로 계속☞

앞면에서 계속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거룩함, 영광, 존귀함, 권능을 다 보여 주셨다면 인간들이 어떻게 그분 앞에 설 수 있었을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의 권능을 감추시고 자기 능력을 보이지 않게 하시고 자기 영광을 버리셨다는 것이 '자기를 비어'라는 겸손의 단어로 우리에게 표현된 것이다. 종의 형체(헬.몰페) 즉 그리스도의 지상 존재 형태가 복종과 천대와 멸시로 특징 되어진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는 것은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별되게 하고 구원의 종교요 사랑의 종교로 부각시키는 중요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겸손의 표현이 우리 사랑과 겸손의 절대 모델이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인간 지혜와 상상력을 초월한 것이다. 여기서 기독교 신앙의 특징과 겸손의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인간의 모양은 본체와 형체와는 달리 다소 가변적이고 일시적이며 본래적이 아닌 형상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랑이었고 그 자체가 겸손의 표상이 되신 것이다. 겸손과 복종의 극치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인간의 모든 겸손은 십자가에 비추어 볼 때 교만으로 나타나고, 인간의 복종은 십자가의 복종에 비하면 불순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복종과 겸손의 극치를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예수님을 우리 교회가 모시지 못함으로, 교회 연합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들의 책임이다.

-한국장로신문 [1486호] 2015년 12월 19일에서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resider : Deacon KiChan Yoo]
[Preacher : Pastor Euichang Kim]

* Call to Worship	John 4:24	Presider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1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Deacon Kichan Yoo
Hymn	2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Col 2:16-19	Preside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5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Presider
Anthem		Congregation
Sermon	"Christ-Centered Life"	Pastor
* Hymn	95	Congregation
* Benediction		Pastor
* Lord's Prayer Song	635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교육전도사 김은숙 박미라 최승원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선 교 사 강아곱·주한나,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정, 바컷잔(카자흐스탄) 스브로토바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율·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정상진·홍성임(팔라우), 서광종·이성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터키노동자), 훈쿠아 망, 탕, 씬, 코, 카, 마이, 랑, 사무알, 레이, 난, 쌍, 싼다, 사우, 키옴, 랑, 호라, 라비, 벤, 비에, 마옹, 차, 짜우, 미카엘(미얀마) 필리몬, 프로산또, 수레시, 수바쓰, 이경엽, 알로롱, 비시누뽀도, 보디소또,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 김덕수(군선교)

제28권 제7호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11:40) 2018년 2월18일

천국시민 양성 · 만민에게 전도 · 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 왕의 제사장들 "

■ 벧전 2:1-12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한 설명을 '택한 족속'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하실 때에는 항상 그 분의 목적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에는 아담과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부르시고 이어서 제자를 부르시고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1. 우리는 예수님과 그의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는 삶으로 부름 받았다

성도들을 태어나게 한 것도 복음이요, 성도들을 자라게 하는 것도 복음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하여 복음에 의해 태어났으면 계속 해서 복음의 능력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복음 속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삶의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가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삶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므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와 은혜의 다스림 가운데 머물러 계신 분의 본보기가 바로 예수님이셨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바로 그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2. 우리는 예수님의 제사장적 소명을 이어가도록 부름 받았다

제사장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5절에서 그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서 하나의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그 신령한 집에서 드릴 신령한 제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만 제사장이 아니고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 곧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 부름 받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모일 때든지, 흩어질 때든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제사장직입니다. 제사장인 우리의 소명은 어두움 가운데 불러내시어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그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제사장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수반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당하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우리는 삶의 제사를 드리도록 부름 받았다

12절의 행실은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제국의 성도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한 삶의 방식, 아름다운 삶의 방식, 매력적인 삶의 방식을 가지므로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보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삶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향한 삶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거룩한 삶과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보더라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신령한 제사는 우리의 삶의 제사입니다.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롬 12:1) 고 말씀합니다.

맺는 말

베드로는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현실에서 도피하지 말고 초월적인 가치를 드러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늘을 향한 순례는 천국만을 바라보는 순례가 아니라 일상을 향한 순례입니다. 누가 진정한 순례자입니까? 일상에서의 순례자가 진정한 천국의 순례자입니다.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과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천국을 향해 나가는 순례자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학교에서 천국을 향해 나가는 일상에서의 순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 정성국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Time	인 도 Presider	기 도 Prayer
Ⅰ	오전 9시	서명철 목사	임상헌 장로
Ⅱ	오전 11시 20분	장석남 목사	이계홍 장로
Ⅲ	오후 2시	조원영 목사	이관규 장로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에의 부름 Call to Worship ···벧전 2:24···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 ·····2(6)·····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시교독 Responsive Reading ···124(사순절1)···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맡 은 이
찬 송 Hymn ·····15(55)···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벧전 2:11-25···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그리스도의 자취"···	정성국 목사
* 찬 송 Hymn ·····484(533)···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인도: 서명철 목사, 설교: 이종윤 원로목사

묵 도	다 함 께
성 시 ····· 시 149:1-2 ·····	인 도 자
찬 송 ····· 249(249) ·····	다 함 께
기 도	이민호 집사
성 경 ····· 계14:1-5 ·····	인 도 자
세례식	이종윤 목사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십자가사랑이 부르는 새노래" ···	설 교 자
* 찬 송 ····· 246(221) ·····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인도, 설교: 장석남 목사

기 도	장호림 권사
성 경 ····· 눅 1:14-15 ·····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공생애의 시작" ···	설 교 자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이경화·홍혜란·김양언·박수강·김복희2

설 교 ····· 장석남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S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Ⅰ부	가브리엘	백경화	김현정11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Ⅱ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Ⅲ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영어예배	예루살렘				지난주 성구			
수요Ⅰ부								
수요Ⅱ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벧전 2:12)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Ⅰ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Ⅱ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Ⅲ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Ⅱ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매일)	인터넷 영상

교 회 소 식

◆ 모 임

1. 샬롬 권사회 월례회 / 18일(주) 오후3시20분 502호
2. 권사회 연합수련회 / 21일(수) 오후3시 웨스트민스터홀

◆ 알 림

1.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6시
4.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5.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9호
   에바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7.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8.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9.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11. 금주 수요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12. 의료 상담 / 이번주 상담은 구정연휴로 쉽니다. 주일 오전 10시10분 - 오전11시까지
    다음주 상담은 김동준(내과), 오병호(피부과) 입니다.
    1층 서적부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8993-5558
13.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310호)
    ※ 전화 예약 010-2376-3892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면에서 계속

14. 금일 세례식 실시 / 금년도 첫 세례식인 금일 2월18일(주) 찬양 예배 시 있습니다.
    ※ 기타궁금한 사항은 010-2376-3892로 문의바람
15. 정성국 목사 소개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B.A.)
    미국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M.Div., Ph.D.)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신약학 교수

◆ 장 례

1. 故 김영구 성도 (9교구 김홍두 권사의 부친) / 2월10일(토) 별세, 12일(월) 발인
2. 故 이희은 권사 (5교구 심화숙 권사의 모친, 소병국 성도의 장모) / 2월10일(토) 별세, 12일(월) 발인
3. 故 홍옥분 성도 (4교구 김광태 집사의 모친, 최종희 권사의 시모) / 2월11일 별세, 13일(수) 발인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921명	223명	357명	1,501명	133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2/11)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2월 11일	헌금	37,772,450	
"	특별예배비		700,000
	찬양운영비		1,000,000
"	교회학교운영비		825,000
	선 교 비		32,649,385
	비전2020		7,080,000
	출 판 비		270,000
"	세금과공과		1,402,960
	소모품비		189,590
	차량유지비		228,000
	복리후생비		135,810
	교통통신비		78,680
"	수도광열비		698,410
	환경유지비		90,000
	수선유지비		5,364,500
	식당운영비		801,400
"	합 계	37,772,450	51,513,735